

제2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남자골프대회



18일 제2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남자골프대회에 참가한 골퍼 동호인이 함평 다이내스티CC 마제스티 8번 홀에서 35도의 폭염을 날리는 아이언 샷을 선보이고 있다. /함평=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클라크 '19전 20기'
클라레 저그 폼었다

브리타시오픈 우승

북아일랜드의 베테랑 대런 클라크가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제140회 브리타시오픈 골프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만 43세 생일을 한 달 남겨둔 클라크는 17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 조지스 골프장(파70·721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1개에 보기 3개를 곁들이어 이븐파 70타를 쳤다.

1타 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선 클라크는 최종 합계 5언더파 275타를 적어내 브리타시오픈 20번째 출전 만에 우승자에게 주는 '클라레 저그'와 함께 90만 파운드(약 15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클라크는 1967년 44세의 나이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로베르토 데 빈센조(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나이 많은 우승자로 기록됐다.

인구 170만 명이 안 되는 북아일랜드는 지난해 US오픈에서 그레이엄 맥도웰, 올해 US오픈에서 로리 매길로이가 우승한 데 이어 브리타시오픈에서 다시 메이저 챔피언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다.



한국계 선수 중에는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지리아)이 이븐파 280타를 치며 공동 5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5오버파 285타로 공동 16위,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은 공동 30위(9오버파 280타)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 후보였던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25위(7오버파 287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아마 고수들 폭염보다 뜨거운 샷 대결

신페리오 이승도 우승·메달리스트 박화서씨
전국 160명 참가... 환상의 코스서 기량 겨뤄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의 잔치인 '제2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5도에 이르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그동안 같고 뒀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무더위를 드라이버에 실어 날려버렸다.

호남 최초의 세계질 푸른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 임페리얼·마제스티 홀(18홀·파 72)에서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샷 건 방식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는 광주·전남·북은 물론 서울과 경기에서 40팀 160명이 참가해 샷 대결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연초록의 그린과 질푸른 경관이 조화를 이룬 환상의 코스에서 매 타마다 최선을 다하며 프로 못지 않은 진담 승부를 펼쳤다.

대회 최종 우승의 영예는 이승도(43)씨에게 돌아갔다. 이씨는 전반 41타·후반 36타로 합계 5오버파 77타를 기록해 신페리오 방식 합계 68.6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씨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부상상으로 주어졌고,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회원대우 특전이 주어졌다.

준우승은 공경운(67)씨가 차지했다. 공씨는 전반 42타·후반 46타로 합계 88타를 기록, 신페리오 방식 합계 68.8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공씨에게는 준우승 트로피와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리고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회원대우 특전이 주어졌다.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화서(54)씨에게는 메달리스트 타이틀이 주어졌다. 박씨는 전반 35타·후반 34타로 합계 3언더파 69타를 기록하며 프로 못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박씨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회원대우 특전이 주어졌다.

이날 롱기스트는 마제스티 18번 홀에서 280m를 기록한 고영탁(27)씨에게 돌아갔고, 임페리얼 7번 홀에서 홀컵 1m까지 불인 김재현(47)씨가 니어리스트 타이틀을 가져갔다.



함평다이내스티CC 클럽하우스 앞에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는 제2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남자골프대회 참가자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5 승용차가 경품으로 걸린 출인원 타이틀은 아쉽게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밖에 시상식장에서 추첨을 통해 뽑힌 행운상 10명에게는 골프용품세트와 골프공 등이 돌아갔다.

특히 남 77타, 장년부(이날 기준 만 41~49세) 79타, 시니어(만50세 이

상) 82타 이하의 스코어를 기록한 이광철씨 등 30여명에게는 US-GTF 티칭프로 선발시험 실기테스트 합격권이 주어졌다.

최고령 참가자인 김종명(69)씨는 "30~40대 동호인들이 주로 참가했지만, 시니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채로 공정하고 매끄러운 대회 진행

이었다"고 평가하고 "오랜만에 젊은 이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대회 진행을 맡은 김구식 US-GTP 경기위원장은 "호남은 물론 서울과 경기에서도 많은 아마추어가 참가한 수준높은 대회였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재미있게 즐기는 경기 하겠다"

신지애·유소연 예비양마스터스 출전

"재미있게 즐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1~24일 프랑스 예비양-르뱅의 예비양 마스터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특급대회 예비양 마스터스에 출전하기 위해 1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올해 US 여자오픈 우승자 유소연(21·한화)은 처음 참가하는 유럽대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예비양 마스터스 대회 첫 출전인 유소연은 이날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는 처음"이라며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해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축하를 받았는데 경기를 즐기면서 풀어가

겠다"고 말했다.

유소연은 "첫 출전이라 코스 특성을 잘 모르지만, 연습 라운딩을 하면서 서서히 적응해갈 생각"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회 우승자인 '지진' 신지애(23·미래에셋)도 예비양 마스터스 2연패를 노리며 이날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다.

장거리 비행에 다소 지친 표정의 신지애는 "자신감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신지애는 "예비양 마스터스 골프장은 그린이 좁아서 난이도가 있지만, 한국 골프장과 비슷해서 편안한 느낌"이라며 디펜딩 챔피언 다운 여유를 보였다. /연합뉴스

화순실고 전국 배드민턴선수권 2연패

화순실고가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 2011 화순 빅터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남고부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 우승팀인 화순실고는 18일 화순 하나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광명북고를 3-0으로 제압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또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는 성지여고가 청송여중고를 3-0으로 꺾고 2007년 우승 이후 4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과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126개팀 865명이 참가해 오는 22일까지 우승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페백식 / 페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